

CNPC, 코스타리카 정유 “물거품”

타당성 조사에 자회사 투입해 계약 위반 ... 공동진행 가능성은 존속

코스타리카 정부가 중국이 최근 지원키로 한 정유공장 증설 계획을 중단했다.

레네 카스트로 코스타리카 에너지 장관은 6월20일(현지시간) 관련 프로젝트의 시행자인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 자회사를 이용해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증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타리카 국영 석유기업인 Recope의 정제설비를 보장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는 최대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입해 진행됐으며, CNPC의 자회사인 HQCEC(Huanqiu Contracting & Engineering)가 해운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타리카는 CNPC의 지원을 받아 Recope의 원유 정제능력을 하루 1만8000배럴에서 6만5000배럴로 늘릴 계획이었다.

Recope는 정제설비 현대화 계획을 다시 구축해 6개월 안으로 프로젝트를 내놓을 예정이다.

호르헤 비야로보스 Recope 사장은 감사 당국이 계약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정부가 계획 중단을 발표한 직후 사임했으나 코스타리카 감사 당국은 CNPC와의 프로젝트 공동 진행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월 초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라우라 친치야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0억달러 상당의 기간시설 개선사업을 약속했다.

코스타리카는 2007년 중앙아메리카 중 처음으로 타이완과 단교한 뒤 중국과 수교했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1>